

제주대학교 · 길림체육학원 학술교류 특강

함께 하는 세상, 함께 하는 꿈 - 북경 올림픽 표지가 상징하는 평화의 추구 -

전영련 · 하용천 길림체육학원

《함께 하는 세상, 함께 하는 꿈(同一个世界, 同一个梦想)》은 북경올림픽운동회의 테마 구호이다. 이 구호는 세상에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준다. -인류는 피부색이 서로 다르고 언어가 서로 다르고 종족이 서로 다를지라도 이 지구 위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면서 올림픽의 매력과 환락을 함께 향수하며 인류의 평화적인 이상을 공동으로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다같이 하나의 세상에 속하며 다같이 하나의 희망과 하나의 꿈을 갖고있다. 이 테마는 북경올림픽운동회에서 선후로 내놓은 6대 표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심화되었다. 지금까지 북경올림픽은 신청표지, 휘장, 마스코트, 운동항목도안, 올림픽메달, 올림픽팻볼 등 6대 표지를 공포했다. 이 6대 표지는 5천년의 문명력사를 갖고 있는 중화민족은 자기의 독특한 문화원소로써 평화의 올림픽이란 이 가장 진정어린 염원을 세상에 표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올림픽신청표지—태극을 환화하고 화목을 시범

2001년 전에 2008년 올림픽을 신청한 여러 도시들에서 동시에 올림픽신청 표지를 내놓았다. 그중에서 북경의 태극인형이 가장 대담하고 민족특색 또한 제일 짙은 것이었다. 그의 대담함은 두개 면에서 나타났는데 하나는 그가 오류이란 이 신성한 것을 사용한 것으로 지금껏 이런 표달방식은 드문것이였다. 다른 하나는 엄격한 서방문화 의의로 말할 때 태극권은 《Sports》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태극권은 경기항목이 아니며 올림픽대회의 《더욱 빠르고 더욱 높고 더욱 강대함》과는 더구나 련관이 없다. 그러나 이 표지는 오히려 대성공을 거둔 도안으로 되였다. 그 원인은 이 표지가 중국의 조화로운 문화 특질을 다방면으로 체현했기 때문이다.

태극권은 중국에만 있는 하나의 권술 종류로서 명대, 청대 양 대에 거쳐 형성되였다. 양생 건신 문화는 중국에서 역사가 유구한 바 종래로 두 가지 주장이 있었다. 한 파는 움직임(動)을 주장하고 한 파는 안정함(靜)을 주장한 것이다. 움직임을 주장하는 파는 《천행건, 군자이자강불식(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즉 군자는 하늘처럼 쉬임없이 운행함으로써 강직하고 분발 향상한다)》, 《강이동, 고장(剛以動, 故壯. 즉 움직여야만 건장함을 이룰 수 있다)》을 강조한다. 반대로 안정함을 주장하는 파는 조용한 양생을 통해, 정신수련으로써 장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

중국전통문화 속의 《서로 어울리면서도 각기 자기 입장을 지키는(和而不同)》 사상은 두 유파의 주장이 모두 보존되도록 했으며 게다가 중국 전통문화 중의 중용 성품은 또 이 두 가지 사상을 융합되도록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움직이는듯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조용한 같지만 조용하지 않은 활동 방식이 형성된 것이다. 움직임은 마치 떠가는 구름, 흘러가는 물 같고 정지는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낮고도 늦은 절주로서 중국 정태성 문화의 발전 특징에 더욱 부합된다. 때문에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은 태극권을 한 눈에 알아보면서 이는 중국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한다.

올림픽 오류의 변형 과정 중에는 또 《중국결(中國結)》의 함의가 침투되어 있다. 중국은 제일 처음으로 새끼에 매듭을 지어 일을 기록한 나라이다. 갑골(甲骨文), 종정(鐘鼎)문자가 세상에 나오기 전 기나긴 시대에 새끼를 매듭 지어 일을 기록하는 방법은 문명을 연속했다. 농업문명시대에 사람들은 더구나 새끼를 주요한 연결 도구로 하여 그 기능을 발전시키면서 새끼를 원료로 하는 예술품이 형성되고 한 가닥의 채색 끈으로 여러가지 대칭되는 도안을 걸어내어 단춧고리, 머리 장식품을 만들었는데 이를 《회감기(盤纏)》라고 불렀다. 여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중국결》이다. 이는 그야말로 지혜와 기교로 충만된 작품으로서 북경 올림픽 신청 표지로 하여금 더욱 강인성을 띠게 했으며 또 이로써 관통되는 품성을 더욱 강조했다.

태극권의 간결한 동작 선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힘을 내포하고 있다면 서로 맞물려 있는 중국결은 세계 여러 나라 인민 간의 단결, 합작과 교류의 뜻을 담고 있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길할 것을 축복하고 있다.

2 올림픽 마스코트—복동이, 복을 기원하며 손님을 맞이

매 회 마다의 올림픽 마스코트들은 다 가장 창의적이고도 가장 흥미로운 것들이었다. 동물모양을 한 것이 있는가 하면(예하면 뮌헨 올림픽은 강아지·와얼디, 몬트리올은 해리·아얼미, 서울은 호랑이·호돌이) 인형 모양을 한 것도 있다(예하면 마드리드의 커비, 아테네의 아테네나와 비위스). 물론 절반은 사람, 절반은 짐승인 것도 있고, 하나인 것도, 둘인 것도, 셋인 것도 있다.

중국문화는 력사가 유구한 장기성이 있는가 하면 또 지역문화의 다양성도 있기에 마스코트로 선택할 물건들이 그야말로 너무 많았다. 게다가 현재 중국에서 세상에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량 또한 너무 많아 마스코트에 부여해야 할 문화내함이 너무 침중함으로써 마스코트의 설계는 한동안 막연하기도 했다. 따라서 방안을 공포하는 최종 기한이 가까와 오면서 마스코트의 확인도 중화문화의 핵심층 면으로 박근했다.

끝내 복동이(福娃) 다섯이 뒤늦게야 태어나긴 했지만 원만한 대단원을 이루었다. 중국문화 가운데에는 《복(福), 록(祿), 수(壽)》라는 3성(星)이 있다. 이는 중국전통문화 속에서 최고 가치 취향인 행복, 재부, 수명을 대표한다. 그중에 복자를 선두로 한다. 《복》자는 현재 중국가정의 생활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러 《복》자를 거꾸로 붙이기도 하는데 거꾸로 도(倒)자는 《복이 온다(福到)》는 도(倒)자와 음이 같기 때문이다.

복동이는 다정한 꼬마친구 다섯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조형에는 각기 물고기, 참대곰, 티벳영양, 제비, 올림픽성화 모양이 들어있다. 매 하나의 복동이에게는 다 부르기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각기 《비비(貝貝)》, 《징징(晶晶)》, 《환환(歡歡)》, 《잉잉(迎迎)》, 《니니(妮妮)》다. 중국에서 인명에서의 접음자는 아이에 대한 귀여움을 표달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다섯 복동이 이름의 발음을 연결시키면 바로 북경이 세계에 하는 친절한 요청 - 《북경은 당신을 반겨맞습니다(北京歡迎你)》가 된다.

복동이 인형들의 색채와 영감은 올림픽 오륜에서 온 것이며 또한 중국의 드넓은 산천과 대지에서 온 것이며 강, 하천, 호수, 바다와 인민들이 즐기는 동물 형상에서 온 것이다. 그 형상 설계는 중국의 전통적인 예술 표현방식을 응용하였으며 중국의 찬란한 문화를 펼쳐보였다. 그러나 이들이 표달하는 주제는 고도로 집중된 것으로서 곧바로 축복이다. 즉 중국전통문화의 대표작인 《론어》의 시작편 제1단 중의 명언인 《벗들이 멀리에서 오니 이 아니 좋은 일일손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이다.

3. 올림픽 휘장두 팔을 벌려 세계를 포용

올림픽 휘장이 성공적인 올림픽에 대한 의의는 말치 않아도 다 아는 것이다. 여러 담당 도시의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모두 휘장 설계를 특히 중요한 자리에 놓았다. 최근에 나온 2012년 런던 올림픽운동회 휘장은 1200만 파운드를 들인 거물급 산물이다. 오랜 시간의 온양을 거쳐 북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중국인(中國印)》을 내놓았다. 이는 집단창조의 결과이며 동방 지혜의 결정으로서 못사람들의 절찬을 받고 있다.

중국 고대에 황제의 인장을 《새(鸞)》 혹은 《보(鳥)》라고 불렀다. 장군의 인장은 《장(章)》이라 하고 백성은 《인(印)》이라고만 불렀다. 이는 신분의 검증이면서 또 권력의 상징이었다. 훗날에는 서화의 서명에 많이 쓰이면서 점차 중국 특유의 일종의 예술품 유별로 되었다. 이렇게 명, 청 양 대에 이르러 문인들이 일컫던 전각(篆刻) 예술의 광염은 눈을 부시었다.

고대에는 동, 은, 금, 옥, 유리(琉璃) 등을 인장을 새기는 재료로 많이 썼다. 후에는 이발, 뿔, 나무, 수정 등을, 원대 이후에는 석재로 만든 도장이 성행되었는데 이름 있는 인장석으로는 수산석, 창화석, 파림석, 청전석 등이었다. 도장을 새기는 재료 외에 도장밥에도 음미할 만한 것이 많았다.

북경올림픽 휘장은 중국 서법과 전각 영감의 추동을 받았다. 북경의 《경(京)》자를 율동하는 인체로 진화시켰다. 음문(陰文)으로 반사시키면서 붓을 휘둘러 《새 북경》의 이념을 체현했다. 《율동하는 북경》은 주홍색 인주를 사용했다. 이는 중국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색채로서 태양, 화염, 선혈을 상징한다. 이 휘장 중에 홍색은 각별히 신뜻한 바 그 걱정은 특히 분방하다. 이는 중화민족이 길하고 순조로움에 대한 예찬을 표달했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에 대한 숭경을 표달했다. 이 역시 올림픽 문화에 대한 가장 적합한 중국식 해석이다.

북경올림픽 휘장은 이름이 새겨진 도장인가 하면 또 한장(閑章)이기도 하다. 북경의 표지로서의 휘장은 중국 수도의 명장인바 그림 같기도 하고 글자 같기도 하며 활발하고 생동한 바 풍아한 선비의 한장으로도 볼 수 있다. 극히 동감적인 곡선은 한 달리기 선수가 종점을 향해 승리를 포용하는 자태를 뜻한다. 또한 《무용》수가 13억 중국인민을 대표해 세계 각지에서 오는 벗들을 뜨겁게 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

4. 올림픽 항목 도안상형의 의지와 취향을, 화합속에 개성을

올림픽 운동항목 도안은 올림픽이 거행되는 기간 가장 널리 사용될 실용적인 표식으로서 체육장, 거리, 수첩, 문표, 기념장, 기념품, 화책, 우표들에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이 도안은 반드시 간단하고 명확하고 문자설명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각국에서 온 선수, 기자, 유람객들이 한 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나간 매 한 회의 올림픽 운동항목 도안을 살펴 보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북경올림픽운동회의 도안 설계는 구상이 독특하고 형상이 생동하며 선이 간결하여 사람들에게 남기는 인상이 깊다.

특히 중국 서법 가운데의 전자(篆字)를 연역시킴으로써 각별히 색다르다. 전자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저명한 서법가인 리사가 주관해 정리해낸 것이다. 전자에는 상형문자의 특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즉 필획의 굵고 가늘이 고르고 변화가 복잡하며 대칭을 추구한다. 전자의 방법으로 운동하는 사람 모양을 연역 하기는 한 차례 상형문자의 《역행(逆行)》이다. 2천 여년 전의 고대 동방의 문자와 현재 서방의 경기가 이토록 많은 같은 점이 있을 진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의 매력 소재가 아닐가 한다.

중국의 문자는 중국문화 가운데서 가장 특징을 지닌 일부분이다. 네 모 글자는 중국문화의 진귀한 보물이다. 중국에는 많고많은 방언과 토어가 있다. 그러나 한자는 시종 통일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문화가 단절 된적이 없은 것은 통일된 문자가의 공로라고 중국의 문화학자들은 보고 있다.

중국의 한자는 상형 문자와 형성 문자로 구성되었다. 세계상의 많은 민족들이 상형문자를 쓴 적이 있다. 허나 대부분 인멸되었다. 유독 중국에서만 2, 3천 년을 내려 오면서 보존해 왔다. 누군가 한어는 컴퓨터시대의 문턱을 넘기 바쁠 것이라고 다언했었다. 그런데 생각밖으로 한자와 컴퓨터는 그렇게 흠잡을 데 없이 완 전무결하게 잘 어울렸다.

오늘날 북경올림픽 운동항목 도안은 독특한 서법 예술로 오래 된 상형문자를 전시함으로써 재차 세인들에게 상형의 의취를 가져다 줌과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감운동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5. 올림픽메달금옥이 가득, 중국과 서양을 절충

올림픽 메달은 선수의 휘황찬란한 순간을 상징한다. 선수는 메달을 옹시하고 키스하고 높이 추켜들 것이고 이는 TV에 클로즈업된다. 그러나 메달은 창의성 공간이 아주 작은 기물이다. 하나는 메달이 작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개 면 밖에 쓸수 없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북경올림픽은 메달에 모든 조예를 충분히 과시 함으로써 사람들을 경탄케 했다.

올림픽 유사 이래 처음으로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제일 특색을 띤 재질인 옥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조합시켰다. 이는 《가장 탁월한 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극히 상상력 있고 상징의의가 있는 바, 전에 없던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는 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동 서방 문화에서 최초의 기본적인 차이는 신석기 시대에 발달한 옥기 문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있다. 중국에서 가장 최초의 용 토템이 바로 옥석으로 조각해 만든 것이다. 동방 문명의 지혜는 옥기에서 찬란한 빛을 발산하고 있다. 옥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공예 가운데서 가장 매력 있는 일종이다.

공자는 언녕 옥에는 인(仁), 지(智), 의(義), 예(禮) 등 11가지 덕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지위가 있고 신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옥의 품성을 따라 배우고 특수한 연유가 아니라면 옥이 몸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은 고상하고 우아하며 포만되고 윤택하고 성결하기에 옥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옥을 부 착하고 옥을 혼상하고 옥을 소장한다. 지어 옥을 일종의 생명 있는 물체로 간주하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옥 과 같이 간다.

중화민족은 이같이 옥을 숭상하고 옥을 공경하고 옥을 사랑하는 정조를 갖고 있는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

서도 쇠퇴되지 않고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염황자손들을 정복해 왔다. 중국 문화가 그 어떤 기복이 있을지 라고 옥을 숭상하고 옥을 사랑하는 민족의 감정은 시종 변함이 없었으며 옥 조각 예술도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 왔다.

중국의 언어 문자에서 《옥》 자는 시종 긍정적이고 정면적이고 숭고한 위치였다. 이를테면 옥처럼 깨끗하게 절조를 지키다, 금지옥엽, 옥으로 만든 미주, 옥석금의, 옥같이 아름다운 체격, 향기가 사자리자 옥이 부서지다, 옥으로 부서질 지언정 기와장으론 남지 않으려다, 금은은 가격이 있지만 옥석은 무가격이다 등등. 이외에도 옥에 대한 이야기, 전설, 문학작품들도 적지 않다. 예하면 완벽귀조 등은 사람들 애국 열정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중국 고전문학 거작인 《홍루몽》은 별칭 《석두기》라고도 하는데 보옥과 대옥이라고 부르는 두 처정 소남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북경올림픽이 설계한 메달은 그 뜻이 깊은 바 동방문화와 서방문화의 동류를 상징하고 있다.

6. 올림픽 화불—상운이 송이송이, 평화를 전달

올림픽 전에 거행되는 화불 전달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올림픽 전에 진행되는, 시간 과도가 가장 길고 공간 범위가 제일 큰 한 차례 선전일 뿐만 아니라 올림픽 정신에 대한 한 차의 광범한 선전이기도 하다. 북경올림픽 화불 전달의 주제는 《조화로운 려행》이다.

고대 올림픽 기간에는 회랍국왕이 조서한 《신성한 휴전》이란 구호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화불로써 적대 사람들에게 무기를 놓고 평화적으로 사귄 것을 알리고 있다.

1993년 10월 25일 새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상징과 평화를 상징하는 오륜과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올림픽 성화와 함께 뉴욕의 유엔대회의 영사막에 나타났다. 이 날 유엔은 제48회 대회 제36차 회의를 거행한 것이다. 전체 대표는 국제올림픽에서 창도하고 올림픽 전체 성원국이 서명한 《올림픽 휴전》 제안을 일치하게 통과했다. 즉 올림픽 운동회 기간과 올림픽 운동회 전 후 각 1주 간은 고대 회랍인들처럼 여러 성원국들은 무기를 놓고 전쟁행동을 정지함으로써 전 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올림픽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했다.

중화민족은 재래로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올림픽 화불에 평화의 념원을 표달하는 것은 중국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화민족은 제일 일찍 불을 발견하고 불을 채집하고 불을 사용한 민족의 하나이다. 북경원인의 유적지에 벌써 불을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상고시대에 수인씨가 나무를 문질러 불씨를 얻었다는 기재가 있고 세세대대 물려가며 찬란한 중화의 문명을 이어가며 발전시켰다. 만리장성에 있는 봉화대는 봉화로 적정과 전쟁소식을 전달했는 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된 《통신》 도구로 되었다.

올림픽 성화의 화불이 중국 사람들 손에 넘겨졌을 때 여러 가지 대상물 중에서 자연히 《상운(祥云)》을 선택하게 되었다. 오색찬연한 상운 지설에는 종교 색채가 있다. 중국 불교에서 상운의 출현은 신의 보우를 뜻하며 태평시대의 도래를 뜻한다. 중국 민간의 의복과 장신구 그리고 관리의 예복, 기둥과 대들보를 채화로 장식한 가옥과 불당, 표지성 건축물 이를테면 화표(華表, 옛날 궁전이나 능(陵) 따위의 큰 건축물 앞에 아름답게 조각한 돌기둥), 단지(丹墀, 붉은 색으로 된 섬돌 위 뜰, 관부와 사당의 붉은 색 섬돌·층계) 등에는 다 상운 장식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5가지 문화 부호는 수평으로 정시하거나 굽어보는 것이라면 상운은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 보고 미래를 멀리 내다 보면서 평화를 기대하도록 한다. 오늘 북경올림픽 화불은 이미 세계의 지붕인 주무랑마봉에 올랐다. 이는 세상에 《평화의 올림픽》이란, 이 13억 중국인민 마음속의 외침과 영원한 추구를 선포한 것이다.

전 세계에 휘날리는 올림픽기는 《함께 하는 하나의 세상》으로 하여금 똑같은 한 폭의 깃발, 한가지 종목, 혈육의 정, 《함께 하는 하나의 꿈》을 갖도록 했다.

2008년 8월 8일 올림픽 성화가 동방의 고도인 북경에서 활활 타오를 때 중국은 두 팔을 벌려 세계 각지에서 오는 벗들을 반겨 맞을 것이며 전 세계 인민들을 초청하여 환락과 평화로 차넘치는 조화로운 축전을 함께 향수할 것이다.

접 수 일 : 2008. 12. 23.

계재확정일 : 2009. 02. 06.

